관광공사 화원관광단지 가로등 공사 발주

지역업체 외면 반발

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않고 일반 입찰 공고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가 화원관광단지 가로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 의무참여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지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광공사 서남지사는 지난 4일 해남 화원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안도로변과 인공해수욕장 일대에 12억원 규모의 가로등 공사 긴급 전자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입찰제로 공고했다.

이에대해 지역 업계에서는 "여러차례 공고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관광공사가 정부 정책을 어기면서 지역중소업체 육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지역업체가 일반 입찰 공사를 따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와 88조 등에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의무화 할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 소재 A사 대표 김모씨는 "타 지역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광공사 서남지사만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서남지사 관계자는 "가능한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라는 것일뿐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인공해수욕장 개장이 임박해 정정 공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사무관 승진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진도군 후보자 정견발표

진도군이 사무관 승진인사에 다면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진도군은 지난 9일 5급 사무관과 농촌지도관 승진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실시했다.

승진 대상자들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담당급 등 53명으로 구성된 다면평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기 소개와 군정 추진에 대한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자율 경쟁의 원리를 통한 우수한 간부공무원 임용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운영 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민선 4기 2년 결산과 과제

■박 연 수 진도군수

태양광 발전·대형콘도 건설 박차

진도군은 민선 4기 2년간 지역민들에게 '진도발전'의 희망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다.

팽목 연안항 개발 사업비와 국도 18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비 등 34건에 84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역대 최고인 2천483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2006년에는 국가청렴위 주관 청렴도 측정평가 등 12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상사업비 7억 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도 환경부 주관 하수관거 정비 집행실적 등 21개 분야에서 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분야 역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삼성물산·포스코 건설 등과 태양광발전소 건립 3건에 9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350실 규모의 1천억원대 대형 콘도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진도군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1천400억원대 군내 산업단지 고려조선소가 오는 11월부터 선박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조성
산업구조 바꿀 조선소 가동
"역사문화, 동력산업 육성"

진도읍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과 임회·지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했으며 도서식수원 개발공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도 42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친환경 고품질 농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대파·배추 위주의 특정품목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참외, 울금, 친환경 약용작물 등 다양한 대체작목을 보급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성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파 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삼별초 호국순례지 조성, 남도석성·용장산성 복원정비 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태양광·풍력·조류 등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연수 군수는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서남해안 시대의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도서, '잘사는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농협 목포유통센터 상반기 310억 매출

목표 초과 달성…80%가 전남산 농산물

지역농가 소득 향상 기여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조성수)가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31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올 사업목표를 560억원으로 정한 유통센터는 상반기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연말까지 총 6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지역 농산물 취급 비중도 80%에 달해 유통센터가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관 개설, 품질관리실 운영 등의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한 결과, 식자재 도매매장을 찾는 회원수가 하루 평균 800여 명으로 지난 해 대비 6% 증가했다.

조성수 사장은 "다양한 판로 확보로, 설립목적인 지역 농산물 물류기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장 5년째를 맞고 있는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소매 기능인 하나로클럽과 도매 기능인 식자재 전문 도매매장 운영으로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해군 3함대사령부 한마음 e-Sports 경기대회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구옥회)가 지난 9일 함대 교육관에서 '한마음 e-Sports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2개 팀 48명의 장병들이 참가해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무대에서 게임을 치렀으며, 관람하는 장병들도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해군 3함대는 장병 자기계발 학습, 지역 문화탐방 및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갯벌속 황금을 찾아라 '슬로 시티' 신안 증도서 '섬갯벌 축제'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슬로 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신안 증도에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제 3회 섬갯벌 축제'가 개최된다.

'젊음, 갯벌을 줌(ZOOM)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갯벌 풋살, 갯벌 피구, 갯벌 장애물 단축 마라톤대회, 바다수영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갯벌속 황금을 찾아라'를 비롯해 머드하우스 짓기, 갯벌생태 학습장, 맨손 고기잡이, 백합캐기, 태평염전 소금체험, 슬로 하이킹 랠리(자전거 하이킹), 추억의 콘서트 등으로 꾸며진다.

신안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농·수·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해 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